



# 실업자를 위한 정보통신 전문교육 지원

하태욱 / 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 사무관

정보통신 전문교육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취업전망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후 취업에 유리한 정보통신분야 교육을 실시하되,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역량있는 다수 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제공할 것이다.

최근의 고용사정은 꾸준한 경기회복, 공공근로 사업의 확대 등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의 폭이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와 구조조정 에 따른 퇴출자를 흡수하기에는 미흡하여 실업 의 현저한 감소 등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라 고 민간 경제연구소 등은 전망하고 있다.

즉, 하반기에도 IMF체제하의 경기불황으로 고 용사정이 가장 좋지 않았던 99년 상반기 실업 률 7.4%보다 조금 낮은 6.3%로 예측하고 있 어 올해도 여전히 실업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업은 계층간 소득격차를 심화시켜 사회혼란 을 가중시키고, 노사대립을 격화시켜 생산성 저 하를 야기하는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특히, 실 업의 증가는 임금 하락과 함께 급여생활자가 대 다수인 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어 IMF이후 중산층 기반이 약화된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98년 3/4분기에 실질 소득과 실질 소비지 출 감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 데 이는

중산층의 경제력 약화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중산층 약화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만들 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문제의 해소를 통해 중산층의 경제 력을 강화하고 정치적·사회적 건전성 회복에 기 여하는 한편, 경제적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졸업이 곧 취업"으로 인식되어 온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상황은 최근 급격히 악화되어 젊고 유능한 대다수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 발을 내딛자마자 실업자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긴요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 등의 실업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산업체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와는 달리 고용보험에 의 한 실업급여 및 교육훈련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미취업자들이 느끼는 실업의 고통은 더욱 크고, 고급 인적자원인 이들이 유희인력으로 사장되

지정 교육기관은 99년 6월 25일까지

신청, 접수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교육여건 등의 현지실사를 거쳐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7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

<표 1>

<사업내용>

프로그램명	교육과정	1인당한도	교육인원	소요예산
정보통신전환교육	S/W프로그래밍, 시스템엔지니어링, 네트워크분야(4~6개월)	200만원	2,500명	50억원
멀티미디어콘텐츠교육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멀티미디어 창작/ 기획 및 제작기술(6개월~1년)	300만원	2,000명	60억원
국제 공인자격과정	MS의 MCP, Novell의 NNCP, CISCO의 CCIE 등(3개월 이상)	300만원	1,000명	30억원
정보통신SOHO창업교육	정보통신 SOHO창업에 필요한 기술, 경영, 정보 관리기법(4~6주)	50만원	2,000명	10억원
계	-	-	7,500명	150억원

여 국가 경쟁력 회복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대졸자 실업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고학력 미취업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정보화근로사업을 추진중이고, 정보통신분야에서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우수 창업아이템을 선정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미취업자에게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미래 유망산업으로서 고용창출이 전망되고 해외에서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에서 활발하게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동사업은 98년 4월부터 204억을 투입하여 추진중인데 99년 4월말 현재 61개 교육기관에서 2,915명이 교육중이고, 교육을 마친 4,019명중 1,279명이 취업해 32%

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분야 교육수요 및 실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99년에도 150억을 투입해 미취업자 등 고학력 실업자 7,500명이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당면한 실업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의 IMF이후를 대비한 취업능력(Employability)배양을 지원해 향후 정보통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보통신 전문교육은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취업전망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후 취업에 유리한 정보통신분야 교육을 실시하되,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역량있는 다수 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제공할 것이다.

즉, 기본적인 S/W, 통신분야 교육 등을 실시하는 '정보통신 전환교육', 게임/애니메이션/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전문교육', MS, SUN, Novell 등이 인증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국제공인자격과정' 및 전자상거래, IP 창업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소규모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법을 교육하는 '인터넷 관련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육은 부가가치가 높고 연성장률이 66%에 이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애니메이션 제작국이나 창작작품은 전체의 5%에 불과하는 등 전문인력의 기획, 창의력 부족으로 일본 등 선진국의 단순 하청작업에 머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보통신분야 국제공인자격과정은 교육 이수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고학력 실업자가 해외로 취업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각 교육 프로그램별 세부 사업내용은 <표 1>과 같다.

지정 교육기관은 99년 6월 25일까지 신청, 접수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교육여건, 교육실적 및 계획 등을 현지실사를 거쳐 확인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역량있는 우수 교육기관을 7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고학력 실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는 각 교육프로그램별로 정해진 1인당 지원금 한도내

에서 소요 교육비의 일부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없는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이다. 98년과 같이 졸업 후 3년 미만인 대졸자에 한정하지 않고 졸업한 지 3년이 지난 대졸자나 전산능력이 있는 고교 졸업자 등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대폭 확대했다.

주교육대상은 전환교육과정의 경우 정보통신 분야 비전공자이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과정은 창의력과 기획력이 풍부한 미술 등 예체능, 인문계열 전공자 등이며, 국제공인자격과정은 전산능력자로서 일정수준 영어능력을 보유하여야 하고, 인터넷 관련 창업과정은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대된다.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은 99년 7월말 이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에 게재된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일정 등을 참조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은 정보통신 인력DB에 등록하여 중소기업 인턴사원 채용, 해외 인력 송출, 정보화 근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인터넷관련 창업교육'도 받도록 하여 벤처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교육이수 후 채용을 전제로 기업과 연계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우선 실시될 수 있도록 연중 수시로 신청, 접수받아 심사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국내/외에서 교육 후 해외로 취업시킬 교육프로그램은 특히 우대할 계획이다. ●